

# 민요 웹사이트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이성훈\*

## <목 차>

- I. 머리말
- II. 민요 웹사이트의 구축 현황과 실태
- III. 민요 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주지하듯이 오늘날은 전자 매체가 발달된 정보화 사회다. 가상공간인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웹사이트 상에 올려져 있는 많은 정보를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Thomas Gresham이 제창한 법칙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릇된 민요 정보의 범람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잘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못된 민요 정보가 본원적인 것인 양 둔갑할 우려마저 짙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웹사이트상의 탑재된 민요 정보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난다. 민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구축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공기관이 구축한 웹사이트까지도 민요의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요종의 분류나 명칭도 제각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요 웹사이트에 탑재된 민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민요학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사이버한국민요대관 사업의 첫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발맞추어 ‘한국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및 자료 활용 방안’이라는 기획주제로 2004년도 한국민요학회 제10차 동계전국학술대회가 2004년 2월 23일~24일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되면서 민요 웹사이트 자료의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류종목, 강등학, 김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류종목<sup>1)</sup>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민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과 콘텐츠 구성 및 전송 방안을 모색하였고, 강등학<sup>2)</sup>은 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혜정<sup>3)</sup>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자료적 특성과 음악학적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선학들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요 정보를 구축한 웹사이트의 현황과 실태를 살핀 후에 탑재된 민요 정보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민요 웹사이트 구축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 류종목, 「<사이버 한국 민요대관>의 콘텐츠 구성과 민요 전송, 『한국 민속의 전송 양상과 인식의 틀』(민속원, 2006), 144~165쪽.

2) 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한국민요학회, 2004), 11~48쪽.

3) 김혜정, 「민요 정보화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음악학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한국민요학회, 2004), 89~110쪽.

한편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민요 웹사이트와 검색엔진 및 포털 사이트의 자료는 200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II. 민요 웹사이트의 구축 현황과 실태

민요 웹사이트는 수없이 많지만, 본 장에서는 팔도소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소리문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구축된 민요정보의 현황과 실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팔도소리(<http://www.paldosori.co.kr/>)

팔도소리는 브리태니커의 ‘뿌리깊은나무 8도소리’의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로 1999년에 구축되었다. ‘팔도소리’는 MBC의 ‘한국민요대전’보다 앞서 구전민요를 음반으로 출판한 유일한 사례로,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급의 노동요와 민요가수들의 유흥요를 스튜디오 녹음하여 LP로 출판한 바 있다. 팔도소리 메인화면에는 세 개의 주메뉴가 있다. 하나는 “민요는 민중의 노래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삶 속의 노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펼침 메뉴로 된 “팔도소리”가 그것이다.

먼저 “민요는 민중의 노래이다”라는 주 메뉴는 권오성이 음악적 측면에서 민요에 관한 개론적 해설을 기술해 놓았다. 민요란 무엇이나,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전통민요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삶 속의 노래”라는 주 메뉴는 김열규가 문학적 측면에서 민요를 해설한 것을 기술해 놓았다. 일판과 소리판, 도가니의 소리, 신명의 소리, 민요의 향토성과 보편성, 지방다운 특색, 향토색의 참모습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팔도소리” 주 메뉴는 펼침 메뉴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소리,

경기도소리, 경상도소리, 장례소리, 전라도소리, 제주도소리, 황해도소리, 충청도소리, 평안도소리, 함경도소리가 그것이다. 펼침 메뉴의 도별로 접속하면 각 도별 민요의 특징을 해설해 놓았다. 다만 장례소리 메뉴는 전라남도 나주, 제주도 성읍, 강원도 명주, 충청남도 부여, 충청북도 증원, 경상북도 예천, 경기도 고양, 경상남도 고성외의 장례소리를 탑재해 놓았다. 이러한 도별 장례소리를 독립 메뉴로 설정하기보다는 각도별 메뉴의 하위메뉴로 설계하는 게 좋을 듯하다. 장례소리를 독립메뉴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면 펼침 메뉴를 크게 의식요, 노동요, 유희요 등 3개의 메뉴로 설계한 다음 각각의 메뉴의 하위메뉴로 팔도소리를 설정해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각 도별 제1단계 서브메뉴에는 요종별 해설, 사설, 소리듣기가 있다. 제1단계 서브메뉴인 소리듣기를 클릭하면 제2단계 서브메뉴인 음성자료와 악보가 탑재되어 있다.

## 2. 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 주메뉴에 음성자료가 있는데, 음성자료의 서브메뉴로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한국민요대관’이 있다. 이 가운데 민요 음성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관’에 탑재되어 있다.

### 1) 한국구비문학대계

“HOME > 음성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 > 유형별” 메뉴로 들어가면 ‘설화, 민요, 무가, 민속, 미분류, 설화 각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민요와 미분류 항목만 살펴보기로 한다. 민요 항목의 하위항목에는 미분류, 노동요(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별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 의식요(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 유희요(세시유희요, 경기유희요, 조형유희요, 풍소유희요, 언어유희요), 비기능

요(비기능요, 판소리)가 있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 > 유형별 > 민요 > 미분류 > 미분류”에 들어가면 930건의 자료가 있다. 이 가운데 #1 가례가는 소리의 서지 탭을 클릭하면, “태잎명: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4, 유형: 민요, 녹음시간: 3분34초, 채록일: 1981. 8.12, 채록자 김영돈·변성구, 채록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출전: 한국구비문학대계 미분류, 출전페이지: 0~0”으로 되어 있다. 텍스트 탭을 클릭하면, “태잎연번: [대정읍민요2493], 음성위치: T.대정4뒤, 채록지: 남제주군대정읍, 채록자: 김영돈·변성구, 구연자: 미상, 음성제목: 가례가는 소리, 출전: 한국구비문학대계 미분류, 출전페이지: 0~0, 설명: 구연상황 없음, 본문내용: 텍스트화되지 않았습니다.”로 되어 있다. 텍스트 탭의 내용은 서지 탭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복 게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텍스트 탭에는 민요 사설만 정리하면 될 것인데, 정작 사설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출전페이지와 본문내용을 수록해야 한다. 즉 종이책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권호별 페이지 정보와 본문내용인 사설을 수록해 놓아야 한다. 또한 #1은 제주도 민요인 <ㄱ래ㄱ는 소리>이다. html문서에서 ‘·’자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례가는소리>로 입력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제분노동요의 하위항목에 탑재되어야 옳다. <ㄱ래ㄱ는 소리>는 제주지역에서 <맷돌노래>의 현지노래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HOME > 음성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 > 유형별 > 민요 > 노동요 > 제분노동요”에 탑재해야 한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구비문학대계 > 유형별 > 미분류” 메뉴로 들어가면, 전체자료 216건이 탑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1~7번 자료를 살펴보면, #1 교훈적인 이야기(\*차상준, \*\*최내옥·김군태·장동숙,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82. 01. 13),<sup>4)</sup> #2 구랑당 전설(\*이만기, \*\*최정여·강은해·이춘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1동,

4) 구연자 앞에는 \*, 채록자 앞에는 \*\*, 채록지 앞에는 \*\*\*, 채록일자 앞에는 \*\*\*\* 약호를 붙이기로 한다. 이하 같음.

\*\*\*\*미상), #3 나비노래(\*이남이, \*\*강은해,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칠봉2동, \*\*\*\*1979. 04. 05), #4 날 찾는 노래(\*미상, \*\*미상, \*\*\*경상북도 성주군 미상, \*\*\*\*1982. 01. 13), #5 남편이 전장에 출전한 후 친정부모공양(\*미상, \*\*미상, \*\*\*경상북도 성주군 미상, \*\*\*\*미상), #6 내용 없음(\*미상, \*\*최내옥 · 김군태 · 정기철 · 김갑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1982. 01. 14), #7 내용을 알 수 없음(\*미상, \*\*미상, \*\*\*경상북도 영덕군 미상, \*\*\*\*미상) 등이다. 이처럼 민요와 설화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도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설화나 민요 등으로 분류하여 탑재해야 한다.

## 2) 한국민요대관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으로 들어가면 “한국민요대관 이용안내” 팝업창이 뜨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한국민요대관은 민요연구자들이 제공한 음원자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음원자료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요연구자들이 제공한 음원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제공자	소속
경기도	김현선	경기대
강원도	강등학	강릉대
충청북도	권오성, 조순현	한양대, 충북대
전라남북도	이경엽, 김혜정	목포대, 경인교대
경상북도	권오경	부산외대
경상남도	류종목	동아대
제주도	조영배	제주교대

무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민요대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논문을 쓸 경우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전체해제”로 들어가면, 한국 민요의 이해-강등학(강릉대), 한국민요의 문학적 특성과 이해-류종목(동아대), 한국 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이해-김혜정(경인교대), 한국 민요의 노래명 표준화 방안-강등학(강릉대) 등으로 나누어 한국민요 전반에 관한 해제가 탑재되어 있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지역해제”로 들어가면, 경기도 민요 지역해제-김현선(경기대), 강원도 민요 지역해제-강등학(강릉대), 전라북도 민요 지역해제-김영운(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라남도 민요 지역해제-김혜정(경인교대), 경상북도 민요 지역해제-권오경(부산의대), 경상남도 민요 지역해제-류종목(동아대), 제주도 민요 지역해제-조영배(제주교대), 충청도 민요 지역해제-배인교(한국학대학원) 등으로 나누어 민요의 지역별 해제가 탑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지역해제 > 제주도 민요 지역해제-조영배(제주교대) > 3. 제주도 민요의 종류” 들어가면, 제주도 민요의 분류방법과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다음에, 정작 제주도 민요의 분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각 지역별 민요의 종류도 필자의 입장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통일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탑재되어 있다.

유희요 > 가창유희요(미상), 언어유희요(말풀이요, 말잇기요, 말쑈기요), 도구 유희요(도구경기요, 도구연기요), 자연물상대유희요(잡기요, 조절요, 부림요, 완상요), 동작유희요(동작연기요, 동작경기요), 신비체험유희요(최면술요), 놀림유

희요(신체놀림요, 인물놀림요, 행태놀림요), 생활유희요(상황요)

의식요 > 통과의식요(장례요, 결혼요), 기원의식요(안녕기원요, 탐색기원요, 풍요기원요), 벽사의식요(축질요, 축귀요, 축화요)

미상 > 미상(미상)

노동요 > 농산노동요(논농사요, 밭농사요), 공산노동요(제분정미요, 건축요, 길짚요, 토목요, 목탄제조요, 야장요, 삭망제조요, 조선요, 옹기제조요, 관망제조요), 가사노동요(양육요, 살림요), 수산노동요(고기잡이요, 해물채취요), 임산노동요(임산물채취요, 목재생산요)

운수노동요(수운요, 육운요), 축산노동요(소사육요, 말사육요), 상업노동요(호객요, 산술요)

이 가운데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유희요 > 가창유희요 > 미상”으로 들어가면, 전체자료 5472건이 탑재되어 있다. #4 자료의 탭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No	노래명	구연자	조사자	조사지	기능	음성1	음성2	음성3	텍스트	악보
.....										
4	가래소리	미상	김기현/ 권오경	경상북도	미상	노래대답	노래	-	텍스트	-
.....										



여기서 텍스트 탭을 클릭하면 뜨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가래소리

음성제목	가래소리
현지명	#



조사자설정명	-
기능명	가창유희요
표준명	고기푸는소리
악곡명	-
태입연번	경북1
음성위치	5669
조사·정리	김기현, 권오경
설명	잡은 고기를 퍼 담으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일반적으로 가래소리라 한다. 고기를 퍼 담는 삽 같은 기구를 가래라 한다. 육지에서 흙을 퍼 나를 때도 가래소리를 한다.
본문내용	가래로다 가--래 동해바다 노는 고기 죽천 앞바다로 점지하소 오이사 가래로다 오이사 가래로다 바람이 불면은 태풍이 올라나/오이사 가래야 아 얼시구 절시구/오이사 가래야 소-가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좋네 아-/오이 사 가래야 잘두 한다 잘두 한다/어랑성 가래여 만구 영원 내 아들들아 바빠 나와 칼 받아라/어랑성 가래여 애야 차 오우 아-/이후후 아- 아
듣기(노래대답)	
듣기(노래)	

<표 1>에서는 기능이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표 2>에서는 기능명이 가창유희요로 되어 있다. #4 자료는 기능명이 가창유희요가 아니라 수산노동요이다. 또한 <표 1>과 <표 2>의 노래대답과 노래는 같은 음성자료를 탑재해 놓았다. 이와 같이 민요 음성자료의 기능별 분류를 잘못 설정한 것이 다수가 있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미상 > 미상 > 미상”으로 들어가면, 전체자료 585건이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도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유희요 > 가창유희요 > 미상”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많다. 특히 수록자료의 노래명을 #1, #2는 ‘가래소리’

로, #4, #5 자료는 ‘가창유희요’로 설정해 놓았다. 민요의 기능별 분류명과 요종별 노래명을 혼재한 상태로 탑재되어 있다. #1과 #2는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노동요 > 수산노동요”의 하위 항목에 탑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지역별”로,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지도”로,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제목별”로 들어가도 <표1>과 <표2>의 #4 자료가 오류가 있는 상태로 뜬다. 이는 구축된 자료가 연동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로 분류하여 탑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지역별, 제목별, 지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로 분류한 자료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잘못 분류된 자료들을 수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끝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 주메뉴에 음성자료가 있는데, 음성자료의 서브메뉴로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방언자료집’, ‘한국민요대관’이 있다. 이 가운데 민요 음성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관’에 탑재되어 있다. 두 개의 서브 메뉴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민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면 한국민요대관 서브 메뉴만을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음성자료의 제1단계 서브메뉴를 민요, 무가, 설화, 설화 각색, 민속, 미분류로 설정하고, 제1단계 서브메뉴의 민요 항목에 제2단계 서브메뉴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민요자료와 한국민요대관의 민요자료를 두면 쉽게 민요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5) 민요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웹 콘텐츠 설계에 대한 논의는 류종목, 앞의 글, 150~159쪽 참조

### 3. 전통소리문화(<http://sori.jeonbuk.kr/>)

전라북도 전통소리문화 홈페이지인 전통소리문화 웹사이트는 “우리소리문화, 전통소리체험, 전통소리가상답사, 전통소리음원, 지역소리축제, 학술자료, 나눔터” 등 7개의 주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HOME > 우리소리문화 > 민요”로 들어가면, “민요의 특징과 기능, 가창방법, 악조와 장단, 민요의 구분” 등 4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의 민요에 대한 해설이 탑재되어 있다.

“HOME > 전통소리체험 > 민요”로 들어가면, “통속민요, 토속민요” 등 2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속민요와 토속민요에 대한 해설 및 요종별 공연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다.

“HOME > 전통소리가상답사 > 소리의 고향”으로 들어가면, 시군별로 구분된 전라북도 지도가 있다. 시군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소리의 명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바타듣기로 들을 수 있고, 소리의 현장을 3D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HOME > 학술자료 > 우리의 소리...”로 들어가서 “전라북도 농악·민요·만가”를 클릭하면, 『전통문화예술의 정리 전라북도 농악·민요·만가』(발행처: 전라북도, 발행인: 강현욱, 연구기관: 사단법인 마당, 발행일: 2004.12.)가 PDF 파일로 제공된다. 시군별로 조사 개요, 지역 개관, 마을 개관, 제보자 소개, 농사 관행 및 상례 풍습, 사설 및 악보, 민요·만가의 음악 분석 등을 수록하고 있다.

## III. 민요 정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팔도소리와 한국민요대관 웹사이트에 탑재된 민요 정보의 문제점을 노래명과 분류, 사설의 정리, 웹 프로모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음에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1. 노래명과 분류

본원적인 민요에는 본디 노래 이름이 없다. Ruth Finnegan도 구전시가 는 보통 제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승자들은 그때그때 편리할 대로 노래 이름을 붙인다.<sup>6)</sup> 주지하듯이 동종의 민요라고 할지라도 채록지역이나 조사자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유 노래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능명을 노래명으로 사용하는 등 자료집과 논저마다 각기 다른 민요 노래명을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민요가 구비문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연구자마다 학문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현실이 이렇다손 치더라도 민요 웹사이트는 민요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요의 노래명과 분류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컨대 <해녀노젓는소리>가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유 노래명과, 자료집과 논저에서는 조사자에 따라 어떤 민요 노래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현지 해녀사회에서 통용되는 <해녀노젓는소리>의 고유 노래명은 <해녀(질)노래> · <해녀(질)소리> · <좁녀(질)소리> · <좁수(질)소리> · <네젓는노래> · <네젓는해녀노래> · <해녀(좁녀)질하는소리> · <물질하는소리> 등이다. 또한 자료집과 논저에서 사용되는 <해녀노젓는소리>의 노래명은 <잡녀가> · <해녀요> · <해녀가> · <해녀노래> · <노젓는노래> · <노젓는소리> · <잡녀소리> · <해녀노젓는소리>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해녀노젓는소리>는 현재 한국민요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래명이다. <해녀노래>는 제주도 민요학계와 주민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노래명인데, 이는 <해녀노래>가 1971

6)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도서출판 조약돌, 1983), 17쪽.

년 8월 26일 제주지역 시도무형문화재 제1호(제주시)로 지정된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이처럼 <해녀노젓는소리>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기능이 서로 다른 노래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녀노젓는소리>를 영문으로 번역한 노래명도 학자에 따라 다르다. Women Divers' Rowing Song(이성훈),<sup>7)</sup> Women Divers' Rowing Songs(이성훈),<sup>8)</sup> Woman Diver's Rowing Song(문숙희),<sup>9)</sup> Rowing Songs of the Women Divers(조규익),<sup>10)</sup> the sound of a rowing woman diver(강명혜),<sup>11)</sup> Women Divers' Songs(김영돈),<sup>12)</sup> Woman Diver's Song(변성구),<sup>13)</sup> Women Sea Divers' Song(좌혜경)<sup>14)</sup>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동종의 민요라고 할지라도 각기 다른 노래명을 사용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요종별 개념의 정리와 통일된 노래명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강등학의 '민요의 노래명 표준화 방안'과 '한국 민요 분류표'<sup>15)</sup>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7) 이성훈,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언어문화』 제27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485쪽.

8) 이성훈, 「<해녀 노 젓는 노래>의 가창방식」, 『濇知論叢』 제9집(온지학회, 2003), 64쪽.

9) 문숙희, 「서부경남에 전승된 제주도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16집(한국민요학회, 2005), 152쪽.

10) 조규익, 「문들의 존재양상과 의미 -<해녀 노 젓는 소리> 전승론의 一端-」, 『韓國詩歌研究』 제18집(한국시가학회, 2005), 42쪽.

11) 姜明慧, 「<해녀 노 젓는 소리>의 通時的·共時的 考察1-서부 경남 지역의 본토 출가 해녀를 중심으로-」, 『濇知論叢』 제12집(온지학회, 2005), 140쪽.

12) 金榮敦, 앞의 책, 153쪽.

13)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실과 유형 구조」, 『한국언어문화』 제29집(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55쪽.

14) 좌혜경, 「일본 쓰가자마[菅島]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제36집(한국민속학회, 2002), 269쪽.

15) 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한국민요학회, 2004), 11~48쪽.

## 1) 팔도소리

팔도소리 웹사이트에는 <해녀노젓는소리>를 <이여도사나>라는 요종명으로 탑재되어 있다. <해녀노젓는소리>의 명칭이 <해녀노래>·<해녀요>·<해녀가>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해녀노젓는소리>의 후렴인 “이여도사나”를 요종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해녀노젓는소리>를 현지 채록 나가서, 제보자에게 “이여도사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 가끔 사용하는 경우는 있다.

민요학계에서는 해녀들이 뱃물질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래를 <해녀노젓는소리>라는 요종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해녀노래>라는 요종명을 고집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녀박물관 웹사이트에도 <해녀노래>라는 요종명을 사용하고 있다. 민요는 고정된 노래명이 없다고 치더라도 학계에서 통용되는 요종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요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해녀노래>나 <해녀노젓는소리>라는 요종명을 쓰더라도 해녀들이 뱃물질 오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며 불렀던 노동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민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서로 다른 노동요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sup>16)</sup>

덧붙여서 가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해녀노젓는소리>를 듣기 위해 <이여도사나>를 클릭하면 선소리는 김주옥, 후렴은 양승옥·김정자·김순열, 테와 반주는 김정자, 녹음은 1983. 5. 13로 명시해 놓았다. 음성자료를 들어보면 선후창으로 부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해녀노젓는소리>의 후렴은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씨’ 등으로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소리를 후렴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16) 필자는 <해녀노래>, <해녀가>, <해녀요> 등의 명칭은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녀노젓는소리>라는 요종명으로 통일하자는 견해를 『해녀의 삶과 그 노래』(민속원, 2005), 33~35쪽에서 밝힌 바 있다.

<해녀노젓는소리>는 주로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나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의 방식으로 부르고, 간혹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나 내리부르기 방식으로도 부른다.<sup>17)</sup>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는 앞소리꾼의 사설을 뒷소리꾼이 그대로 되받아 부르거나 조금 변형시켜 그와 같은 사설을 받아서 부르는 방식이고,<sup>18)</sup> 메기고받아 부르기 방식은 앞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뒷소리꾼들이 후렴으로 뒷소리를 받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후렴”은 ‘뒷소리’로 해야 옳다.

## 2) 한국민요대관

한국민요대관에 수록된 노동요의 음성자료 중에는 노래명과 기능이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더러 보인다. 이는 웹사이트 구축자의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먼저 노래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노래명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노동요 > 수산노동요 > 해물채취요” 메뉴로 들어가면 전체 86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과 #2 자료는 노래명이 ‘<내녀노젓는소리>’로 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를 채록한 조사자 조영배가 “<해녀노젓는소리>를 녹음하겠습니다.”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자가 생략된 채 <내녀노젓는소리>라는 노래명으로 된 것은 웹사이트 구축자의 착오로 보인다. 이런 원인으로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제목별 > 나” 항목에서 검색하면 #129 <내녀노젓는소리>(\*김영부, \*\*조영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991. 07. 26)와 #130 <내녀노젓는소리>(\*김부선, \*\*조영배,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

17) 위의 책, 89쪽.

18) 이창식, 『민요론』,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집문당, 1995), 180쪽.

19) 위의 책, 181쪽.

리, \*\*\*\*1991. 07. 26)로 검색된다.

둘째, 탑재된 음성자료와는 다른 노래명이 부여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3 자료는 음성자료를 들어보면 <ㄹ래ㄹ는소리>(맷돌노래)인데도 <해녀노래>라는 노래명으로 탑재되어 있다. 또한 #24 자료는 음성자료를 들어보면 <해녀항쟁가>인데도 <해녀노래>로 탑재되어 있다. #9 자료 <노젓는소리>(\*이영복, \*\*조영배,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40 자료, #64 자료(\*·\*\*미상,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86 자료(\*윤문수,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KBS 제주방송총국 스튜디오)는 창자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9 자료는 <노젓는소리>로, #40 자료와 #64 자료는 <해녀노젓는소리>라는 노래명으로 탑재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사공이나 해녀가 돛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는 사실과 가락이 같다. 따라서 <뱃사공노젓는소리>라는 노래명으로 탑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86 자료의 구연자가 윤문수라고 되어 있는데 녹음자료를 들어보면 조사자 조영배는 “강원호 할아버지께서 선소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후렴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구연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4 자료 <노젓는소리>(\*미상, \*\*조영배,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는 음성자료를 들어보면 <테우젓는소리>이다.

셋째, 노래명이 일관성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3~#9 자료는 <노젓는소리>로, #15 자료는 <이여도사나>로, #16~#22 자료는 <이여도사나소리>로, #23~#24 자료는 <해녀노래>로, #25~#83 자료는 <해녀노젓는소리>로, #84~#86 자료는 <해녀소리>로 되어 있다. 이들 중에 #6~#8 자료는 조사자 조영배가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에 채록한 <노젓는소리>인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해녀노젓는소리>로 노래명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민요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가락이나 사실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노래명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기능이 다른 노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능이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노동요 > 수산노동요 > 해물 채취요” 메뉴로 들어가면 전체 86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0 <방아짙는소리>, #11 <방애짙는소리>, #14 <세콜방애소리>(\*미상, \*\*조영배,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989. 05. 28), #23 <해녀노래>는 “HOME > 음성자료 > 한국민요대관 > 기능별 > 노동요 > 공산노동요 > 제분정미요”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산노동요 > 해물채취요”로 분류돼 있다. #13 자료 <상사소리>(\*미상, \*\*조영배,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는 “농산노동요 > 밭농사요”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물채취요”로 분류돼 있다. 또한 #24 <해녀노래>는 작사자와 작곡자가 있는 <해녀항쟁가>이다. 이 자료는 “노동요 > 수산노동요 > 해물채취요”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굳이 분류한다면 “유희요 > 가창유희요”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 2. 사설의 정리

앞절에서 노래명과 분류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본 절에서 논의하려는 사설 정리의 경우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사설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지난한 문제이다.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방언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오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사설의 오기는 제보자가 부른 사설의 어휘를 수집자가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와, 민요자료집을 編著할 때 原著와는 다르게 사설의 어휘를 잘못 수록한 경우가 있다. 수집자가 사설을 오기하게 된 원인은 제보자가 가창한 사설의 어휘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확히 청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본다. 물론 제보자의 잘못된 제보에 따른 사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sup>20)</sup>

20) 필자는 사설의 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 「<해녀 노 짙는 소리> 辭說의 誤記 및 語釋의 誤謬」, 『한국민요학』 제16집(한국민요학회, 2005), 235~262쪽의 논의를 참조

사설 정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가 들어간 어휘를 입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자가 들어간 어휘를 그림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음성자료와 사설을 함께 제공하는 팔도소리 웹사이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사설의 오기와 정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보기로 한다.

팔도소리 웹사이트에서 “HOME > 팔도소리 > 제주도소리 > 김녕 고기잡이소리 > 이어도사나”로 들어가면 <이어도사나>에 대한 해설과 사설이 탑재되어 있다. 앞소리를 부른 김주옥을 A라고 하고, 뒷소리를 부른 양승옥·김정자·김순열을 B라고 약칭해서 팔도소리에 탑재된 사설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A	B
… (전략)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 넬 젓영	요 넬 젓영
어딜 가코	어딜 가리
진도 바당	진도 바당
<u>홀로 나가자</u>	<u>홀로 나가자</u>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u>요 노동이</u>
이어도사나	무엇을 먹고
이물에는	이어도사나(이물에는)
이 사공아	이어도사나(이 사공아)
고물에는	이어도사나
<u>도사공아</u>	이어도사나

<u>허릿대 밑에</u>	<u>허릿대 밑에</u>
화장이야	화장이야
물때 점점,	어어 물때 점점
늦어나진다,	히 늦어나진다
저어라 저어	저어라 저라
<u>이여라 배겨라, 히</u>	<u>이여라 와겨라</u>
쿵쿵 <u>짚어라, 히</u>	쿵쿵 <u>짚어라</u>
저어라 저어	저어라 저어라
우리 선관	우리 선관
가는 뿔랑	가는 뿔랑(이여도사나)
미역 좋은	이여도사나
여끝을로	이여도사나
전복 좋은	전복 좋은
<u>저 머들로, 히</u>	<u>저 머들로</u>
설이나 설설	설이나 설설
<u>인도나흡서</u>	<u>인도나흡서</u>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히	이여도사나
저어라 저어	저어라 저어
<u>짚어라 배겨라, 히</u>	<u>짚어라 와(배)겨라</u>
쿵쿵 <u>짚어라, 히</u>	쿵쿵 <u>짚어라</u>
저어라 저어	저어라 저어
요 네 착이	요 네 착이
<u>부러나진다</u>	<u>부러나진다</u>
한라산에	한라산에(이여도사나)
곶은 남이	곶은 남이(이여도사나)
없을소나	없을소나

요 밴드레	요 밴드레(이여도사나)
<u>그쳐나진다</u>	<u>그쳐나진다</u> (이여도사나)
서늘꽃이	서늘꽃이(이여도사나)
<u>머의 정당</u>	<u>머의 정당</u> (이여도사나)
없을손가	없을소내(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쳐어라 쳐어	쳐라 쳐
<u>한 멀홀랑, 히</u>	<u>한 멀홀랑</u>
<u>젓구나 가고, 히</u>	<u>젓구나 가고</u>
한 멀홀랑, 히	한 멀홀랑(이여도사나)
쉬고나 가자, 히	쉬고나 가자
쳐라 쳐, 히	쳐라 쳐
<u>차라 차</u>	<u>차라 차</u>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중략)...

<u>한짝 손에</u>	<u>한짝 손에</u>
태왁을 메고	태왁을 메고
<u>한짝 손에</u>	<u>한짝 손에</u>
비창을 들라	비창을 <u>쥘라</u>
칠성판을	칠성판을(이여도사나)
등에다 지고	등에다 지고(이여도사나)
<u>한 질 두 질</u>	<u>한 질 두 질</u> (이여도사나)
<u>깊은 멀 속</u>	<u>깊은 멀 속</u> (이여도사나)
<u>들어가 보낭</u>	<u>들어가 보낭</u> (이여도사나)
은금보화	은금보화(이여도사나)
<u>아서라미는</u>	<u>아서라미는</u> (이여도사나)
<u>내 손 잘라</u>	<u>내 손 잘라</u> (이여도사나)

<u>못할레라</u>	<u>못할레라</u>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헤이	이여도사나
쳐라 쳐	쳐라 쳐
<u>한 멀흘랑, 히</u>	<u>한 멀흘랑</u>
짓고나 가고	짓고나 가고
<u>한 멀흘랑, 히</u>	<u>한 멀흘랑</u>
쉬고나 가자, 히	쉬고나 가자
쳐라 쳐	쳐라 쳐
<u>짙여라 배겨라, 히</u>	<u>짙여라 배겨라</u>
<u>쿵쿵 짙여라, 히</u>	<u>쿵쿵 짙여라</u>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하략)…<sup>21)</sup>

[1]의 사설을 보면 가창방식이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 방식으로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소리를 후렴이라고 한 것은 매기고받아 부르기 방식(先後唱)으로 부른 것으로 잘못 설명한 것이다.

[1]에는 사설의 띄어쓰기 오류와 사설의 오기 또한 많다. 띄어쓰기 오류는 제주어 어법을, 사설의 오기는 제주어 표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설을 정리한 자가 가창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설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는 음성자료를 청취해 보면 분명히 들어난다.

먼저 사설의 띄어쓰기 오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인용문의 “홀로 나가자”는 ‘홀로나 가자’로, “늦어나진다”는 ‘늦어나 진다’로, “인도나흡서”는 ‘인도나 흡서’로, “부러나진다”는 ‘부러나 진다’로, “그쳐나진다”는 ‘그쳐나 진다’로, 띄어쓰기를 해야 옳다. 예컨대 “진도 바당”을 “진도나 바

21)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오류 부분으로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그은 것임.

당”으로 노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가락에 따라 ‘-나’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사례는 인용문의 “젓구나 가고”, “젓고나 가고”, “쉬고나 가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설의 오기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용문의 “요 노동이”는 ‘요 낫둥이’로 해야 옳다. 제주방언에서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덩이인 이른바 너울덩이를 ‘낫둥이’, ‘낫덩이’이라고 한다. 또한 “도사공아”는 ‘고사공아’로, “허릿대 밑에”는 ‘허릿대 밋디’로, “이여라”는 ‘지여라’로, “저 머들로”는 ‘즌 머들로’로, “짙어라”는 노를 저어라의 의미인 ‘지여라’로, “머의 정당”은 ‘농인<sup>22)</sup> 정당’으로, “한 멀흘랑”은 ‘흔 머들랑’으로, “차라 차”는 ‘차라 차라’로, “한 짝 손에”는 ‘흔착 손에’로, “비창을 쥘라”는 ‘빗창을 쥐라’로, “한 질 두 질”은 ‘흔 질 두 질’로, “깊은 멀 속”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보낭”은 ‘들어가 보낭’으로, “아서라마는”은 ‘하서라마는’으로, “내 손 잘라”는 ‘내 숨 줄라’로 표기해야 옳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민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요 정보를 얻는다면, 제공된 정보 그대로를 믿기 십상이다. 따라서 민요 웹사이트가 웹상에서 음성자료와 민요 사설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보다 정확한 사설의 정리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난해한 어휘에 대한 주석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 3. 웹 프로모션

민요정보를 탑재한 훌륭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의 갱신이 용이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방문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은 다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홈페이지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웹 프로모션이다. 민요 정보를 탑재한 홈

22) 필자는 인용문의 ‘머의’는 ‘농인’으로 들린다. 분명하게 들리지 않으므로 정확히 청취하여 확인을 요하는 어휘이다.

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든다손 치더라도 누리꾼(네티즌)에게 홍보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웹 프로모션의 종류에는 검색엔진에 홈페이지 등록, 뉴스레터(News letter), 배너광고, 유즈넷(Usenet) 홍보, E-mail 마케팅, 이벤트 프로모션: 포인트적립, 게시판 및 방명록 포스팅 등이 있다. 민요 웹사이트는 수익을 창출을 전제로 한 기업의 사이트가 아니므로 웹 프로모션의 종류 가운데 검색엔진에 사이트를 등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국내 검색포털과 검색엔진에 등록하고 필요시 off-line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국내 검색엔진 가운데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네이트(www.nate.com) 등에서 검색어를 ‘민요’로 하여 통합검색을 했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과 구비문학대계, 한국브리태니커회사의 자매 사이트인 팔도소리, 전통소리문화 등이 등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검색된 사이트의 등록 현황은 제목, 설명, URL, 카테고리 순으로 기술하고 웹 프로모션의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네이버(www.naver.com)

네이버 검색엔진에서 검색어를 ‘민요’로 하여 검색해 보면 총 149건의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전통소리문화

설명: 전라북도의 전통음악, 판소리, 농악, 민요, 무악, 시조 정보 및 감상, 전주세계소리축제, 전통소리음원 등 수록.

URL: <http://www.sori.jeonbuk.kr/>

카테고리: 문화, 예술 > 전통문화 > 국악, 전통음악

문화, 예술 > 전통문화 > 국악, 전통음악 > 민요 > 전라도

제목: 팔도소리-한국브리태니커

설명: 경기, 서도, 남도 등 전통민요, 칼럼 소개, 지역별 민요 감상 제공.

URL: [http://preview.britannica.co.kr/...](http://preview.britannica.co.kr/)

카테고리: 문화, 예술 > 전통문화 > 국악, 전통음악 > 음악감상

제목: 장서각

설명: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고문서 열람서비스, 민요 및 방언 자료 제공.

URL: <http://yoksa.aks.ac.kr/>

카테고리: 교육, 학문 > 도서관 > 전자도서관

이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과 구비문학대계는 ‘장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어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목을 ‘장서각-한국민요대관, 한국구비문학대계’로 설정해 놓으면 일반인이 접속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또한 “민요 및 방언 자료 제공”이라는 설명을 ‘민요와 방언 음성자료 제공’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다음(www.daum.net)

다음 검색엔진에서 검색어를 ‘민요’로 하여 검색해 보면 총 245개의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전라북도 전통소리문화

설명: 전북지역 전통음악, 판소리, 농악, 민요, 사물놀이 소개 및 음악자료 수록.

URL: <http://www.sori.jeonbuk.kr/>

카테고리: 음악 > 국악, 전통음악

제목: 팔도소리

설명: 팔도 민요 소개, 도별 민요 설명 및 소리듣기 제공.



URL: <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paldosori/>

카테고리: 국악, 전통음악 > 음악감상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과 구비문학대계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검색어를 ‘장서각’으로 하여 검색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민요연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민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설명: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서, 고문서, 사진, 음성자료  
검색 서비스

URL: <http://yoksa.aks.ac.kr/>

카테고리: 교육, 학문 > 전자도서관

설명에 ‘민요’라는 항목이 없고 “음성자료 검색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 일반인이 민요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네이버 검색엔진에 등록된 설명처럼 “민요 및 방언 자료 제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민요와 방언 음성자료 검색 서비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목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한국민요대관, 한국구비문학대계’로 설정해 놓으면 일반인이 접속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 3) 네이트([www.nate.com](http://www.nate.com))

네이트 검색엔진에서 검색어를 ‘민요’로 하여 검색해 보면 총 82개의 웹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전라북도 전통소리문화

설명: 전북지역 판소리, 민요, 농악, 사물놀이, 무악, 산조의 유래와 역사, 종류,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연 등 자료 제공. 박물관을 가상 공간에서 체험, 전통소리음원 제공.

URL: [www.sori.jeonbuk.kr](http://www.sori.jeonbuk.kr)

카테고리: 문화, 예술 > 문화 > 문화재 > 무형문화재.

제목: 팔도소리

설명: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황해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등 각 도별 타령 및 민요 해설, 리얼 오디오 음악 감상 가능.

URL: [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paldosori](http://preview.britannica.co.kr/spotlights/paldosori)

카테고리: 문화, 예술 > 예술 > 음악 > 장르별 > 전통음악 > 국악 > 음악 듣기

제목: 전통소리문화

설명: 판소리 5마당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수궁가 듣기, 농악, 민요, 무악, 시조, 가야금병창, 산조, 줄풍류 관련 소리와 국악기 컴퓨터 음원 자료 제공.

URL: [sori.jeonbuk.kr](http://sori.jeonbuk.kr)

카테고리: 문화, 예술 > 예술 > 음악 > 장르별 > 전통음악 > 국악

이 가운데 전통소리문화 웹사이트는 두 개의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어 민요연구자와 일반인이 접속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과 구비문학대계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 검색어를 ‘장서각’으로 하여 검색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설명: 한국학 전문도서관, 소장 자료검색, 고도서 해제 및 원문검색 서비스, 구비문학 및 설화 음향자료 오디오 서비스, 한국학대학원 학위논문 원문.

URL: lib.aks.ac.kr

카테고리: 학문, 사전 > 도서관 > 전자도서관

설명에 ‘민요’라는 항목이 없고 “구비문학 및 설화 음향자료 오디오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노출되는 문제점은 네이버와 다음 검색엔진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 IV. 맺음말

본고는 민요 정보가 탑재된 웹사이트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민요 웹사이트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민요 웹사이트들은 음원, 영상, 악보, 사설 등 웹사이트마다 독창적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된 민요 정보가 많은 문제점 안고 있었다. 노래명과 분류, 사설의 정리, 웹 프로모션 등이 그것이다.

동종의 민요라고 할지라도 채록지역이나 조사자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유 노래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능명을 노래명으로 사용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민요 웹사이트는 민요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요의 노래명과 분류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본다.

팔도소리 웹사이트는 사설과 음성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설의 오기와 사설의 띄어쓰기 오류를 범한 사례가 많았다. 이와 같은 오기와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설을 정리한 자가 가창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설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난해한 어휘에 대한 주석 작업도 필요하다.

전통소리문화 웹사이트는 전라북도의 민요에 대한 해설, 통속민요와 토속민요에 대한 해설 및 요종별 공연모습을 담은 동영상에 탑재되어 있고 소리의 현장을 3D 파노라마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군별로 조사 개요, 지역 개관, 마을 개관, 제보자 소개, 농사 관행 및 상례 풍습, 사설 및 악보, 민요·만가의 음악 분석 등도 수록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 웹사이트는 방대한 음성자료가 탑재되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래명과 기능이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노래명이 잘못 표기된 경우, 탑재된 음성자료와는 다른 노래명이 부여된 경우, 노래명이 일관성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능별 분류가 잘못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자료 제공자의 착오가 아니라 웹사이트 구축자의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민요 정보를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구축된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구축된 민요 정보를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웹 프로모션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팔도소리와 전통소리문화 웹사이트는 ‘민요’라는 검색어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고, 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카테고리 분류 또한 충실하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요대관 웹사이트는 검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대한 설명 또한 검색엔진마다 제각각이었다.

현재까지 구축된 민요 웹사이트는 음성자료, 악보자료, 사설 자료 등을 탑재한 게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앞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구축한다면 민요 구연 현장이나 기능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 동영상, 음성자료, 문자자료, 악보자료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요 웹사이트의 교육적 활용과 성과에 대한 연구는 뒤로 미룬다.

핵심어: 민요 웹사이트, 노래명과 분류, 민요 정보, 동영상, 웹프로모션, 웹사이트 홍보, 3D 파노라마, 음성자료.

<참고문헌>

자료

- 전통소리문화(<http://sori.jeonbuk.kr/>)  
 팔도소리(<http://www.paldosori.co.kr/>)  
 한국브리태니커회사(<http://www.britannica.co.kr/>)  
 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해녀박물관(<http://www.haenyeo.go.kr/>)

논저

- 강등학, 「민요 데이터의 정보처리 구도와 자료분류 표준화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 한국민요학회, 2004.
- 姜明慧, 「<해녀 노 짓는 소리>의 通時的·共時的 考察1-서부 경남 지역의 본토 출가 해녀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12집, 온지학회, 2005.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도서출판 조약돌, 1983.
- 김혜정, 「민요 정보화와 <사이버 한국민요대관>의 음악학적 활용 방안」, 『한국민요학』 제14집, 한국민요학회, 2004.
- 류종목, 「<사이버 한국 민요대관>의 콘텐츠 구성과 민요 전승」, 『한국 민속의 전승 양상과 인식의 틀』, 민속원, 2006.
- 문숙희, 「서부경남에 전승된 제주도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제16집, 한국민요학회, 2005.
-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과 유형 구조」, 『한국언어문화』 제2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 이성훈, 「<해녀 노 짓는 노래>의 가창방식」, 『溫知論叢』 제9집, 온지학회, 2003.
- \_\_\_\_\_, 「<해녀 노 짓는 소리> 辭說의 誤記 및 語釋의 誤謬」, 『한국민요

학』 제16집, 한국민요학회, 2005.

이성훈, 「서부 경남지역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전승과 변이양상」, 『한국 언어문화』 제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_\_\_\_\_,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이창식, 「민요론」, 『민속문학이란 무엇인가』, 집문당, 1995.

조규익, 「문들의 존재양상과 의미 - <해녀 노 짓는 소리> 전승론의 一端 -」, 『韓國詩歌研究』 제18집, 한국시가학회, 2005.

좌혜경, 「일본 쓰가지마[菅島]의 ‘아마’와 제주 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제36집, 한국민속학회, 2002.

## Status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Folk Song Websites

Lee, Seong-hun\*

In this study, status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websites containing folk Song information have been examined and accordingly, the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Folk song websites, despite being consisted with original contents per each, such as voice, visuals, musical scores and commentaries, etc., hold numerous problems in the information of folk songs contained. These problems are related to titles and categories of songs, organization of commentaries and web promotion, etc.

The reality is that even the same folk song is found to use different song titles commonly used in local areas per the area of recording or researcher. Also, the functional titles are also being used as the song titles. However, titles and categories of folk songs must be standardized since folk song websites are targeted to general public, rather than scholars studying folk songs.

Paldosori (folk songs of the eight provinces in Korea) website is providing voice data together with commentaries. However, it contains a number of errors in writing and spacing of commentaries. Traditional Folk Song Culture website delivers commentaries on folk songs of Jeollabuk-do, moving pictures containing scenes of performances per song type and voices produced with 3D panoramic views, etc. Overview of Korean Folk Songs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lthough equipped with a vast array of voice data, contains errors in song titles

---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and functional categorizations in some places.

Publicizing websites is as important as implementing folk song information websites. Plans of activation through web promotion must be devised to enable easy approach by general public to the implemented websites of folk song information.

Key-words: Folk song websites, titles and categories of songs, folk song information, moving pictures, web promotion, Publicizing websites, 3D panoramic views, voice data.